

# 'R&D 기술개발 어렵지 않아요'

### 전북중기업청, 내일 R&D 지원사업 설명회 열어 지원방안·기술보호·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설명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일 '2019년도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전북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본부·지방청), R&D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합동으로 R&D 주요 지원정책, 기술보호, 스마트공장 구축지

원 등과 같이 우리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와, 금년에 새롭게 전면 개편된 4대 추진전략(단독, 협력, 지역산업, 인력지원 R&D) 및 지원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특히, R&D 사업을 참여하고 싶어도 사업보고서 작성, 온라인 신청 방법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한다.

R&D 기술개발에 관심이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무료 수강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유기현 주무관(0463-210-644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온누리상품권으로 설맞이 장 보세요'

### 전북농협, 온누리상품권 판매로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관내 영업점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를 적극 홍보 중이다.

특히, 전북도는 이달 21일부터 31일 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기존 5%에서 10%로, 할인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적용했다.

법인의 경우, 상품권 구입 후 전북상인연합회에 구매영수증이 첨부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구매금액의

5%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효과와 동시에 40%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 설맞이 장보기 붐을 일으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112만장, 114억원 어치를 판매했고 전년 대비 약 63% 증가한 것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도내 전 영업점의 지속적인 관심과 마케팅의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김장근 NH농협은행전북본부장은 "전북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설맞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2019 설을 맞아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즐거운 기쁜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http://www.sjpngto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 전북중기청,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올해 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관련 설명회를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중기부에서 전북도를 직접 방문 진행하며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 '헬프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공포 이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하고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을 드릴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중기부는 "1월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기업환경개선팀 김진호 주무관(063-210-6434)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22일 농협전북지역본부에서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농산물 제값받기 통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결의

### 도 - 전북농협, 조공법인 통합마케팅 사업추진 전략회의 가져

전북도와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2일 농협전북지역본부에서 전북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략회의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통합마케팅조직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관내 생산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과 가교역할을 수행,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선도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올해는 도 단위로 품목별 광역 연합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전북 통합물류 사업추진을 전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릴레이 통합 판촉행사, 유통업체 바이어초청 전북농산물 상품설명회 개최 등 전북농산물 판매에 더욱 매진하여 농가수취가를 더욱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가-농협-조공법인-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로서 전북도 농업정책과 협력하는 전북형 통합마케팅 상생 모델을 완성시켜 삼각농정의 '제값받기 실현'의 최첨단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2019년 연합사업 목표인 4,000억원 달성을 위해서 전북농협과 전북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하나로 뽐낼 뭉쳐 올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농촌에 희망을 심어주고 진정한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고 소비자에게도 전북 우수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생명의 신상품 '백세시대NH치매보험'의 열기가 뜨겁다.

## '백세시대NH치매보험' 열기 뜨거워

### 출시 당일 전북에서만 600여건 가입 돌파

NH농협생명(대표이사 홍재은)의 신상품 '백세시대NH치매보험'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 21일 출시 당일 전북관내 농·축협에서만 600여건 가입 돌파로 그동안 보장자산에서 소외되었던 농업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장근 농협은행전북본부장은 "백세시대NH치매보험"에 가입하며 경도치매부터 보장이 되고 중증치매 진단 시 매월 간병비가 죽을 때까지 보장된다는 점, 무엇보다 나 자신 보다는 자녀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입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특히, 백세시대NH치매보험은 NH농협생명 치매보험으로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의 폭을 확대한 상품으로 2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

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또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고령자라도 실제 치매와 관련 있는 2가지 질문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고 가벼운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보장, 중증치매 진단 확정 시 보험료 납입면제와 함께 매월 120만원씩 중신도록 지급되는 간병생활자금이 특징이다.

한편, 치매보장 특화상품답게 차별화된 특약도 강점이다. 안심케어 특약은 치매환자의 부양자(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피부양자(부모)에게 일시금 500만원과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을 10년 확정 지급한다.

이 외에도 중증알츠하이머치매 보장특약, 파킨슨병보장특약에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한마음으로 전북축산 발전 위해 노력 할 것"

### 전북축협운영협의회, 무허가축사 적폐화 등 당면현안 논의

전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송재근 무진정축협 조합장)는 지난 22일 농협전북지역본부에서 2019년도 제1차 협의회를 하고 가축질병 차단방역, 무허가축사 적폐화 등 축산업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 부분부장, 최현규 농협사료 전북지사장, 운영환 군산비이오장장, 김현식 농협목우촌 김제육가공장장이 참석해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김양우 축산사업단장은 "현안보고를

통해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달라지는 축산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AI·구제역·ASF 특별방역대책 및 무허가축사 적폐화 지속 추진 등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송재근 협의회장은 "축산 선진국과 FTA 발효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 악성가축질병인 고병원성 AI·구제역 발생, 가축분뇨법에 의한 무허가축사 적폐화 문제 등으로 축산업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회원 조합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전북축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